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며 역할은 무엇인가



신용우
부산경남남유 조합장

요즈음 낙농가들을 만나면 무슨좋은 소식 없느냐고 묻는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귀가 따갑도록 아이 엠 에프(IMF) 소리를 들어왔고 앞으로도 최소한 몇 년은 더들어야만 한다고 한다. 낙농업이 어디에서 와서 오늘에 있고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는 매일매일 이 주제를 되뇌어야 할만큼 어려우며 불길한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한 때도 있다.

혹자는 앞으로 낙농산업의 앞이 흰히 보인다고 하고 어떤 이는 시계불명이라고도 한다. 말을 한 사람의 뜻을 풀이하면 같은 말이겠지만 전자의 말을 뒤집어서 긍정적으로 해석하여야겠다. 왜냐하면 우리낙농가가 앞으로 나아가갈 길과 방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보다 자명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 나아가야할 바를 몇가지 생각해 보자.

첫째로 우리 낙농가들은 생산자로서 생존권과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협회를 중심으로 뭉쳐야 하며 우리의 권익을 저해하는 모든 여건들은 개선토록 하여야 한다.

지난 몇 년간 일들을 돌이켜보면 낙농업계에 바람잘 날이 거의없이 어려움의 연속이었으며 그 때마다 협회는 적은 인력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대정부 및 관련단체에 최대한 활동하여 낙농가의 권익 보호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그에 대한 노력은 그 누구보다도 부인할

“

**협회를 중심으로 낙농가들이 뭉쳐야만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다.
또한 개개인의 낙농가들은 이번 정기총회에서 선임된 임원 및
지역대의원들을 중심으로 회원가입 증대에 가일층 노력하고
우리권익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농촌지도자를 적극
육성시키고 21세기를 대비하는 협회로 만들자.**

”

수 없는 사실이다.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낙농환경에서는 더욱 협회를 중심으로 낙농가들이 뭉쳐야만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다. 또한 개개인의 낙농가들은 이번 정기총회에서 선임된 임원 및 지역대의원들을 중심으로 회원가입 증대에 가일층 노력하고 우리권익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농촌지도자를 적극 육성시키고 21세기를 대비하는 협회로 만들자.

둘째로 우리 낙농가들은 아이엠에프 시대에 맞는 경영목표를 갖고 꾸준한 생산비를 줄이는 노력을 기우려 소득 향상과 대외 경쟁력을 키우자.

이제 우리는 좋아 하던 좋아하지 않던 아이엠에프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경영개선을 위한 쪼트소능력 검정사업에 참여하고 주먹 구구식이 아닌 기록하고 분석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기우려야 한다. 환율의 무제한적인 등락과 그에 따라 생산비의 50% 내외인 사료비가 70% 이상까지 폭등하도록 춤을 추고있는 배합사료, 수입 조사료 가격은 우리낙농가들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모든 상황은 어떻게 되던지가 아닌 우리가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싶다.

우리는 지금을 이렇게 생각하자. 더 큰 어려움이 오기전에 우리에게 사전준비를 시켜주는 값진 경고를 받고있는 시기라고. 따라서 더 큰 어려움이 오기전에 국제화 시대에 맞는 생산비 절감 노력과 수입 등 외부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자가 생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우려 생산비를 줄이자. 단순히 원유 생산만을 하여 소득을 맞추려고 생산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무리한 시설투자를 한다던지 편할려고 외부조달 사료에만 의존하는 사육형태는 생산비 절감 노력을 기우려도 효과는 낮을 수 밖에 없고 더욱 어려워질 뿐이다.

가족전업 형태로 목장경영규모에 맞는 적정한 원유량을 생산하되 생산비를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느냐가 소득을 결정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인근 농산 부산물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며 가능하면 티엠알(TMR) 등 쪼트 소리에 맞는 사양급여 체계를 도입하고 유질을 개선하며 고품질 원유를 생산토록 하고 체세포수가 높은 저능력우는 과감히 도태를 시키자. 그리고 고능력우를 확보토록 하고 경제수명을 늘리

66

생산비를 줄이기 위하여 인근 농산부산물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며
가능하면 티엠알(TMR) 등 젖소 생리에 맞는 사양급여 체계를
도입하고 유질을 개선하며 고품질 원유를 생산토록 하고
체세포수가 높은 저능력우는 과감히 도태를 시키자.
그리고 고능력우를 확보토록 하고 경제수명을 늘이도록 하여
젖소개체의 교체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을 최소화 하자.

99

도록 하여 젖소개체의 교체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을 최소화 하자. 이외 생산비 감축을 위한 모든 사항들은 우리주위에 얼마든지 있으며 선입견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로이 살펴 보아 생산비를 줄이자. 그나마 우리나라농은 자급사료를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타축종에 비하여 더욱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본다.

남을 탓하기 전에 내 스스로가 한사람이 두사람 몫을 하는 생산비 감축 노력으로 목장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고품질 원유생산으로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으며 소비자들에게 항상 선택받을 수 있는 신선한 우유를 공급토록 하자.

셋째로 낙농업의 진흥과 발전은 낙농가 없이는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며 관련생산자 조합, 정부, 유가공업체 등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유제품 완전 수입개방에 대응토록 하고 낙농업을 식량안보차원에서 지지도록 하자.

95년 이후 변동없던 원유가가 98년 1월 1일부터 18.4% 인상됨에 따라 낙농가들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나 소값은 바닥이라서 도움이 되지않고 단지 원유 납유량을 증가시켜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전국적인 경제한파로 우유소비자가 격감한 지금은 원유체화로 분유가 쌓이니 원유증산 노력도 자연히 유업체의 눈치를 보게되고 또 유업체는 낙농가에게 눈치를 주고있는 실정이다.

이에 제도화된 원유수급 조절기능을 수행하는 기구가 필요하였으며 늦었지만 낙농진흥법 개정과 낙농진흥회가 발족되어 낙농업계에 있어 큰변화가 예상 되고 있다. 낙농진흥법은 낙농업과 낙농관련산업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생산자, 소비자, 유가공업체 등이 공평한 입장에서 낙농가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공감대 형성이 긴요하며 이를 위해 적극적 노력을 하여야 하겠으며 일반 유가공업체의 경제논리 보다 우선되는 식량안보 차원의 협조가 필요하다.

또한 낙농가가 안심하고 원유생산에 전념하고 유가공업체는 우수한 유제품 생산에 전력할 수 있도록 역할분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겠다. 그리고 이번에 발족한 낙농진흥회가 짧은 기간내 각 유업체 및 집유조합의 의견수렴을 하고 시행령·시행규칙 등 관련 제도 마련과 후속

“

지금은 단지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여
 후손에게는 보다 나은 낙농환경을 물려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 오늘의 어려움만 생각하지 말고 현재 주어진 역할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위를 둘러보고 서로의
 지혜를 모아서 작은 것부터 협동하고 꾸준히 실천하자.
 우리 낙농산업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다.

”

조치 준비에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법개정 취지와 일치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낙농진흥회와 축협중앙회간에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상호 보완적 기능정립에도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다.

넷째로 낙농산업의 부산물인 축산분뇨는 폐기대상이 아니라 활용해야 하는 자원이므로 보다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자.

환경오염에 대한 법규제가 대폭강화되고 있으므로 낙농가는 새로 개정된 관련법률을 충분히 알아서 대처해야 한다. 가축분뇨는 환경친화적인 활용만이 자원으로서 가치를 최대한 활용이 가능하고 방치하면 이웃에 혐오감을 주고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는 수질을 오염시키는 폐기물이다. 따라서 가축분뇨를 환경친화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하여 정부, 관련학회, 산업체 등에서 연구하고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한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겠다.

다섯째 낙농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낙농관련 학문을 체계화 하자.

젖소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해 오는데 동안 관련학문은 전체적인 깊이있는 학문보다는 부분적이고 편협적인 부분에 치우쳐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제 여러 어려움 속에서 더욱 성숙할 수 있도록 낙농산업과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정립과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우리나라를 낙농부국으로 만들어 후대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지금은 단지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여 후손에게는 보다 나은 낙농환경을 물려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 오늘의 어려움만 생각하지 말고 현재 주어진 역할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위를 둘러보고 서로의 지혜를 모아서 작은 것부터 협동하고 꾸준히 실천하자.

우리 낙농산업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다. ㉞